

문화유산관광을 통한 유산의 보존·관리 방안에 관한 소고*

김 현기** · 최 중현*** · 한 주형****

요 약

유산의 가치와 매력을 극대화하면서 자원의 보존관리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산관광이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높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갖는 문화유산관광은 잘못된 관리 과정에서 유산의 가치보존 및 유산관광 측면 모두에서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풍납동 토성은 세계적 수준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 보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관광과 유산의 보존관리 관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풍납동 토성의 사례에 적용하여 문화유산관광을 통한 유산의 보존관리에 대한 방안을 탐색 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와 관련문헌, 신문기사, 주민 인터뷰, 참여관찰 분석을 통해 풍납동과 풍납동 토성의 현황과 이슈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산의 가치가 논의되고 유산의 보호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유산의 진정성에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연결성의 부족’이 유산의 사회적 물리적 위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유산의 완전성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풍납동과 풍납동 토성에 ‘역사’와 ‘연결’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고, 공간 연결, 사람 연결, 시간 연결, 지역 연결의 세부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관광과 유산의 보존관리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확장시켜 신뢰성과 진실성을 담보한 유산관광 및 유산의 보존관리전략 도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문화유산관광, 유산의 보존관리, 풍납동 토성, 지역주민, 사례분석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8914028)

** 경기대학교 여가관광개발학과 석사과정. E-mail: hkim1993@naver.com

***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학부과정. E-mail: joychoi7558@gmail.com

**** (교신저자) 경기대학교 융합교양대학 조교수. E-mail: juhyoungan@gmail.com

I. 서론

유산(遺産)이란 철학, 민속, 문학, 가치, 풍습 등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과 바다와 산, 동·식물, 자연공원과 같은 자연유산(natural heritage) 그리고 자연유산에 인간이 개입하여 만들어진 복합유산(mixed heritage)으로 분류될 수 있다(유네스코). 그 중 문화유산은 인류의 문화적 행위의 결과로 탄생하고 전승된 유산으로 건축물, 유적지, 예술품 등의 유형 문화유산과 생활방식, 의식, 민속, 사고방식과 같은 무형문화유산으로 분류된다(김지선·이훈, 2010).

국내에서는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등 법적 관리와 행정적 학술적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가 1972년 정기총회에서 채택한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제도를 확립하고 운영함으로써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닌 문화·자연유산을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한숙영, 2015). 2018년 8월 현재 세계유산은 전 세계 167개국에 총 1,092점이 등재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은 총 13점이 등재되어 있다(문화재청).

문화유산의 역사적, 문화적 자원과 가치를 공유 및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유산과 관광의 개념을 결합한 문화유산관광(cultural heritage tourism)이 논의되어 왔다. 문화유산관광은 문화유산 보존과 유산이 위치한 지역에 경제적 사회·문화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문객으로 하여금 문화유산의 매력을 경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가치와 의미를 알게 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한숙영·김사현, 2007; 문화재청, 2007). 그러나 세계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 훼손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유산관리 측면에서 보존관리와 관광의 두 측면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준다(한숙영, 2015)는 우려가 담긴 논의가 있어왔다.

선행연구에서 유산의 보존관리와 관광자원화의 혜택 및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김성우, 2007; 김지선·이훈, 2010), 보존과 활용간의 관계를 단계적으로 구분한 연구가 이루어 졌지만 (McKercher & du Cross, 2002; 한숙영, 2015), 유산의 보존관리와 관광의 대립관계 혹은 공존의 관계가 어떠한 맥락과 상황에서 형성되며, 함께 일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유산이 도심 거주지역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나타나고(서울시 역사문화재과, 2018), 유산의 보호와 개발은 대립관계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오상운·노경국, 2011), 이에 따라 유산의 보존관리에서 지

역주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케이 반 댐, 2013)을 고려하였을 때, 거주지와 혼재된 유산구역에서 유산의 보존관리와 관광자원화의 관계를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관광과 유산의 보존관리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풍납동 토성의 사례에 적용하여 문화유산관광을 통한 유산의 보존관리에 대한 방안을 탐색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 백제역사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풍납동 토성과, 유적이 위치한 풍납동의 주요 이슈들을 관련 보고서 분석, 뉴스기사분석, 주민 인터뷰, 현장 참여관찰 조사를 통하여 사례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을 통해 풍납동 토성 유산의 보존관리와 유산의 활용이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관계형성에 미치는 맥락적 요인은 무엇이며, 현재의 상황에서 어떠한 방향과 방법으로 유산 관광과 유산의 보존관리가 공존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세계유산 등재과정이나 유산관광의 활용 단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관리 방안에 학술적, 실무적 논의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선행 연구 고찰

1. 문화유산관광

문화유산관광은 특별한 목적과 관심을 가진 관광 유형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높은 역사적인 가치를 갖는 문화재, 유적지 또는 박물관 등을 답사하는 문화관광의 일환이다(장경수, 2001). 문화관광을 역사관광 그리고 문화유산관광 두 가지로 나누어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역사적 가치를 강조하는 역사 관광(historic tourism)이라는 관점에서 역사와 문화 그리고 관광을 접목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김혜란, 2009). 현대 사회의 상업화와 획일화 그리고 세계화가 진행되고 문화 가속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문화유산의 인류문화 다양성 강조라는 측면이 관광 상품으로서 매력성을 높게 평가받았다(김지선·이훈, 2010). 유산관광의 동기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대한 향수에 기초하며 여러 문화적 경관과 표현양식을 느끼고자하는 욕구에서 비롯하여, 물질문명의 발달과 인간성의 상실로 인한 전통문화 파괴와 과거에 대한 동경이 방문객들로 하여금 정신적인 가치와 진정성 그리고 인간성회복을 추구하게 하고 있다(전명숙, 2006).

특히 세계문화유산은 인류의 생의 과정과 과거의 모습뿐만 아니라 전통과 사상, 예술 그리고 문화 등 많은 정보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으며(남윤희·엄서호, 2016) 세계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자부심 고취에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Ashworth & Turnbridge, 1990). 또한 세계유산의 관광 자원화나 상품화를 통해 문화유산이나 역사적 사실들을 사회 교육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이일열, 2008).

문화유산관광의 목적과 유형역시 단체 여행객들의 단순한 역사 유적지의 피상적인 관람에서 유적과 건축물 그리고 출토유물에 대한 보다 더 고유하고 창의적인 경험을 목표로 하는 개별여행으로 변화하고 있다(변찬복·한수정, 2013). 송학준(2012)은 문화관광의 선택속성과 지각된 가치개념을 통해 경복궁 관광객들의 만족도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는데 발견된 역사성, 교육성, 편의시설, 프로그램 등의 4가지 선택속성 모두 관광객의 경제적, 감정적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만족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류재숙·임재필(2018)의 연구에서는 백제문화유적지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방문객이 인식하는 백제문화유적지의 이미지와 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밝히고 경험을 통해 인식된 고유성이 그들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숙영·전민지(2017)의 연구에서는 충남 부여의 주요 관광지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서비스가 관광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유산관광은 두 가지의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할 자원인 동시에 지역발전 및 이윤추구를 위한 관광 상품화의 수단인 것이다(변찬복·한수정, 201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보존관리와 관광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문화유산 관광에 관한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2. 유산의 보존관리와 관광자원화에 관한 논의

전 세계적으로 관광을 통하여 유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상존하지만, 국가적 차원, 지역차원의 유산 활용 노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황희정·박창환, 2015). 하지만 문화유산관광이 성장함에 따라 유산의 훼손을 유발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이 전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김지선·이훈, 2010) 세계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 완전성 훼손과 같은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존과 관광과의 균형을 모두 고려해야한다(한숙영, 2015). 하지

만 국내의 연구에서는 문화유산 관광객의 체험과 경험 그리고 만족으로부터 느끼는 진정성과 고유성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었지만(황희정·박창환, 2015; 윤설민, 2015; 류재숙·임재필 2018) 유산측면에서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관광자원화와 지속적인 보존·관리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일부 연구에 제한되어 있다(한숙영, 2015; 김지선·이훈, 2010).

세계유산 보존관리와 관광의 관계를 분석한 한숙영(2015)의 연구에서 국내 세계유산의 관광객 관리계획 유무를 검토한 결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국내 유산 중 문서화된 관광객 관리계획을 확보하고 있는 유산은 없다고 하면서, McKercher와 du Cros(2002)의 유산보존관리와 관광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였다. McKercher와 du Cros(2002)는 유산의 보존관리와 관광의 관계를 전적으로 갈등하는 관계, 초기 갈등관계, 조금 성가신 관계, 서로 관심 없는 단계, 공존하는 관계, 함께 일하는 관계, 전적으로 협력하는 관계 총 7단계로 구분하였으며 한숙영(2015)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와 관광의 관계가 공존관계에서 함께 일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높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갖는 문화유산관광은 잘못된 관리 과정에서 유산의 가치가 상실되거나 본질이 소멸되어 관광 차원이나 문화재 보존 측면 모두에서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김용근, 2002). 유산자원이 지닌 가치와 매력을 극대화하면서 자원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모형에 관한 김지선·이훈(2010)에 연구에서는 기존의 유산관광자원의 관리모형과 차별화된 지속가능한 고궁관광 관리모형(PaToM model)을 제시하여 고궁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가치와 매력성을 극대화 시키고 이를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여 고유성을 잃지 않는 차원에서 후대에 까지 보존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는 보존과 활용의 관계에서는 문화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광가치가 결정되며, 최적의 관리수준 안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보존과 활용이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Mekercher & Cros, 2002)는데 힘을 실어 준다. 관광과 유산의 보존관리와의 관계가 전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보존관리의 수단으로서의 문화유산관광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3. 세계유산의 가치와 지역사회의 역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는 ‘진정성’과 ‘완전성’이란 가치조건이 요구된다. ‘진정성’

이란 유산의 ‘여러 특성들’과 그것이 내세우는 잠재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 사이의 연결성이 얼마나 진정한가 하는 것으로 진정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어떤 유산이 내세우는 가치들이 그 유산의 여러 특성들에 ‘진실로’ 반영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이 점에서 진정성을 ‘신뢰성을 지닌(credible)’ 혹은 ‘진실성을 지닌(truthful)’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UNESCO). 진정성은 재질, 기법, 기술 등의 측면에서 유산이 갖고 있는 원(原) 가치의 정도를 말하며 문화유산에만 적용된다(강동진·박소현, 2013).

특히 문화유산에서 진정성이 중요한 가치로 논의되는 이유는 문화유산에 부여된 모든 가치에 대한 판단이 각 문화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심지어 같은 문화 속에서도 다를 수 있음(The Nara Document On Authenticity, 1994)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진정성에 대한 해석과 실천적 방안은 그 유산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상황을 분석하고, 지역의 고유의 맥락 및 문화에 대한 이해,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인식과 경험을 존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해당 유산의 진정성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유산 고유의 맥락에서 유산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완전성’이란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표현함에 있어서 필요한 충분한 제반 요소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요인으로 그러한 특성들이 완전한 상태이며 훼손되지 않은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개념이며 세계 유산 목록에 표기된 모든 유산은 완전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UNESCO). 완전성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가치 평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개념으로 진정성과 차이가 있다(전중환, 2013). 또한 완전성은 자연유산 또는 문화유산과 그 속성의 온전함과 손상되지 않은 상태를 측정 한 것으로 완전성의 조건을 검토하기 위해서 유산의 범위를 평가해야 한다(UNESCO). 완전성은 3개의 요소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완전성은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포함 한다’, 둘째는 ‘완전성은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제반 요소(시스템)을 보유한 정도를 의미 한다’이고 마지막은 ‘완전성은 개발의 악영향을 받지 않음’이다.

이러한 완전성 구성요소의 관점은 앞서 기술한 유산의 보존관리와 관광자원화 관계에 관한 논의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표현하는 제반 요소가 훼손되지 않고 보존관리 되어야 한다는 완전성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산의 보존관리와 관광자원화가 공존의 관계 나아가 전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로 가야하고, 특히 유산이 거주지 내에 혼재하여 위치하는 경우 일수록 지역주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도심 내 유산구역은 지역주민과의 마

찰이 나타나고(서울시 역사문화재과, 2018), 특히 세계유산의 관광자원화가 지역사회의 소외 나아가 지역의 피해로 이어진다면 유산의 보호와 개발은 상충관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오상운·노경국, 2011). 이러한 맥락에서 유산의 가치보호와 유산의 활용이라는 두 활동이 공존의 관계로 갈 때 유산의 완전성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으며, 이는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방안에 논의에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참여가 중요할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세계유산의 등재과정에서의 진정성과 완전성 조건을 충족 및 유지할 수 있는가는 무엇보다 주요 이해관계자 집단 중 하나인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문화유산과 공존하는 지역사회 정체성에 대한 가치 제고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유산관광을 활용한 유산의 보존관리 방안에 대해 탐색함으로써 관광과 주민, 문화유산의 공존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대상지 현황분석

1. 연구방법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한 방법으로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사례연구는 질적 연구접근의 하나로써, 하나의 사례 또는 여러 사례를 탐색하고 문헌, 관찰, 면접,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정보원천을 포함한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전반적인 의미에 대해 논하는 연구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사례분석으로 현재 사적 제 11호로 지정된 백제 한성시기 도성유적인 풍납동 토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5년 우리나라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부여·익산)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백제역사문화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 되었으며 특히, 서울 백제역사지구(풍납동 토성, 몽촌토성, 방이동 고분군, 석촌동 고분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하고 있는 풍납동 토성은 서울시내 도심 위치, 오랜 기간에 걸쳐 홍수, 건축 등의 자연적, 사회적 원인으로 유산의 유실, 도시발전과정에서 개발로 인한 유산의 일부 훼손, 거주지와 혼재하여 위치하여 토성 및 토성내외부의 매장유산의 복원의 어려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역주민과의 마찰 등 유산의 보존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왔다(서울시 역사문화재과, 2018).

특히 세계적 수준의 역사적 가치를 가진 풍납동 토성을 지속적으로 보존관리 하고

자 하는 방법 중 하나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의 확장등재준비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주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포함되어 있어 유산의 보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은 관광개발에 대한 활성화가 아닌 제약을 두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개발 욕구와 상충될 수 있으며 개인 재산권과 관련하여 많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오상운·노경국, 2011). 따라서 유산의 보존관리와 문화유산관광간의 관계를 심도 있게 탐색하는데 풍납동 토성은 타당한 사례 대상지로 판단된다.

풍납동 토성과 유적이 위치한 풍납동의 현황과 이슈, 풍납동 주민들이 직면한 문제점 등을 선행연구와 관련문헌, 신문기사 등을 통해 파악하고 주민 인터뷰를 통한 문화재 지정과 세계유산 등재추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또한 현재 상황과 유산의 위해요인 파악 등을 위해 현장 참여관찰을 진행하였다. 참여관찰은 2018년 2월 ~ 5월, 3개월에 걸쳐 주중 2일, 주말 2일 오전 및 오후시간에 이루어 졌으며, 사적지로 지정된 풍납동 토성과 공원, 풍납1동 및 풍납2동 거주지를 대상으로 유적의 형태 및 보존 관리 현황, 이용객의 이용행태 등을 조사하였다.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는 2018년 5월 주중 및 주말에 풍납동 토성과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이용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주로 풍납동 토성에 대한 인식조사, 주민거주와 보호구역 관리에서의 이슈 혹은 갈등, 세계유산등재에 관한 의견 등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2. 대상지 개요 및 현황

1) 풍납동 현황

풍납동은 송파구에 속한 동(洞)으로, 송파구 북쪽 한강변에 위치해 있다. 면적은 $2.36km^2$ 으로 같은 구 내 성내동, 신천동, 방이동과 인접해 있다. 풍성로를 기준으로 동쪽은 풍납 1동, 서쪽은 풍납 2동으로 나뉘어져 있다. 풍납동의 인구수는 2018년 4월 말을 기준으로 풍납 1동 15,805명, 풍납 2동 25,096명으로 총 40,901명이 거주하고 있다. 송파구 인구 665,319명의 약 6.15%가 거주하고 있으며, 17,262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풍납동 인구 변화추세를 보면 2010년 6월 49,026명에서 40,901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 풍납동 토성 현황

풍납동 토성은 사적 11호로 지정된 문화유산이다. 남북으로 2km, 동서로 1km의 규모로, 유실 부분까지 포함하면 3.5km 둘레다. 풍납동 토성은 유실된 동 성벽 일부

와 서 성벽 일부를 제외하면 남, 북, 동벽 2km가 존재한다. 토성 내에서 발견된 유물로는 41m 길이의 남북도로와 22m길이의 동서도로가 발견되었고, 건물 터, 도기, 청자, 토기 등의 유구들도 다량 발굴되었다. 1925년 을축년 대홍수로 인해 중국제 청동 초두, 과대금구, 유리구슬 등의 중요 유물이 출토되며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후 1963년 사적 제11호로 재 지정되었다. 1964년 서울대학교에 의해 풍납동 토성 내부에 대한 시굴이 이루어졌고, 이 결과 2개의 백제시대 주거 층이 확인되었으며 성 내부에서 무문토기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그 이후 아파트 재건축현장에서 백제 토기 등의 유물이 발견되어 긴급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거지 및 환호, 토기 가마 등의 유구와 유물이 발견됨으로 백제시기의 문화층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 풍납동 토성 위치

IV. 사례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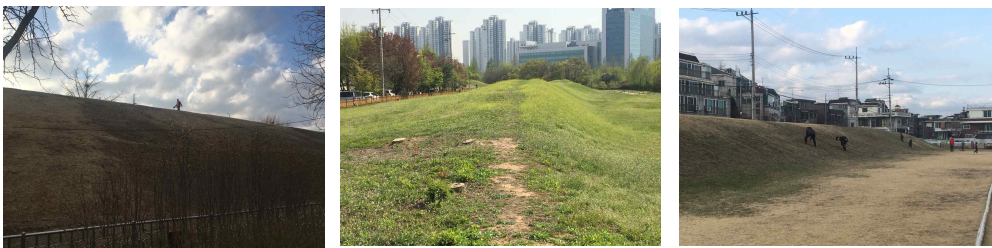
1. 대상지 이슈 현황

본연구의 사례분석 대상지인 풍납동 토성에 관하여 관련자료, 뉴스 등 자료조사, 인터뷰 및 참여관찰을 통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대상지 이슈를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상대적으로 미흡한 유산의 가시성과 인식부족이다. 풍납동 토성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역사에서 갖는 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 또한 발굴 결과 당시 백제의 축성

기술 및 건축 문화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지닌다. 그러나 해당 유산은 풍납동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고, 물리적으로도 매우 인접해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유산의 물리적 위치가 주민의 주거자산 및 생활자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지리적, 인문 사회적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이 지역에 오랜 기간 거주하던 주민들은 토성을 백제시대의 중요한 유산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동네 언덕 혹은 산책로 정도로 인식하기도 한다. 또한, 토성이라는 물리적 특징은 다른 유사형태의 유산 (예. 성곽유산)에 비해 가시적으로 주변 환경과 구분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풍납동 토성은 과거 홍수 등의 변화로 인해 남서쪽 성벽 일부가 유실되고, 주거 및 산업 공간 (예. 삼표공장)으로 인해 성벽의 연결이 끊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유산의 물리적 및 사회적 위해요인이 유산이 갖는 진정성과 완전성의 가치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풍납동 토성의 이용자로 인한 유산의 물리적 위해요인이 존재한다. 풍납동 토성은 데크,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출입이 허용된 지역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객과 유산의 경계를 마련하고자 산책로 주변에 로프를 이용한 낮은 경계 설정, 출입구에 허리 높이 정도의 철제 펜스, 행위제한 안내판 등의 장치를 설치해 두었다. 현장 참여관찰 결과, 그러나 누구든 쉽게 넘나들 수 있는 수준이고 주민들의 심리적 거리감은 훨씬 가깝다. 따라서 펜스를 넘어 성벽 위를 산책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성벽 최상단 부분이 길처럼 훼손되어 있는 상태다. 이외에도 산책로를 벗어나 성벽과 산책로 사이의 잔디밭에서 아이들이 단체로 뛰어 놀거나 애완견을 풀어놓고 산책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봄 철 성벽에 자생하는 식용 식물을 채취하거나, 어린이들이 막대기 등을 이용해 성벽을 직접 파헤치며 놀이를 하는 장면을 종종 목격할 수 있었다.



성벽 무단출입

성벽 출입으로 인한 훼손

성벽 산책으로 인한 훼손

<그림 2> 풍납동 토성 훼손 현황

셋째, 풍납동 토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풍납동 토성이 1963년

문화재(사적 제 11호)로 지정됨에 따라 풍납동 토성 성벽 내부의 마을은 주민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게 되었다. 단적인 사례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재건축이나 개발이 제한되어 성벽 밖의 발전된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낙후된 모습을 갖게 되었다. 또한 법적 제도적 규제로 인해 낙후된 주거시설, 슬럼화 된 거리 등 생활환경에 피해를 입었다고 일부 주민들은 주장한다. 또한, 서울시에서 풍납동 토성 및 매장유산의 발굴 및 복원을 위한 수용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지하에 묻혀있는 유물, 유구 등 매장유산의 발굴을 위해 풍납동 내 주거지의 수용과 철거를 진행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 금액 및 범위에 있어 서울시, 송파구, 주민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지속적인 마찰이 있어왔다. 또한, 풍납동 토성의 세계문화유산으로 확장등재 논의가 되는 과정, 향후 매장유산의 발굴 및 보존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어 장기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입장과 역할이 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보존관리 방향 수립

풍납동 토성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 보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 하고, 향후 보존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산의 가치가 논의되고 유산의 보호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세계유산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산의 진정성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유산의 가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판단되고 해석되는 것이 아닌, 유산이 위치한 맥락, 지역문화의 이해, 지역주민의 인식과 경험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역의 맥락, 가치, 정체성을 고려한 유산구역의 정체성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유산 보존관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물리적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 연구의 사례대상인 풍납동 토성의 경우 ‘연결성의 부족’이 유산의 위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유산구역의 유실로 인한 공간연결의 부족, 보존관리 주체와 지역주민간의 사람연결의 부족, 백제시대부터 현재까지의 가치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장소에서이 시간적 의미연결이 그것이다. 이러한 연결을 통하여 유산의 보존과 개발이 공존의 관계로 나아가고, 주민주도로 유산이 지속적으로 보존 및 관리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안과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1) 풍납동 정체성(Identity)과 콘셉트 키워드 도출

위에서 분석된 이슈를 바탕으로 유산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이를 바탕으로 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문화유산관광자원화 콘텐츠를 제시하고자 한다. 풍납동의 정체성은 “역사”와 “연결”로 이해할 수 있다. 단순히 백제시대의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닌 역사적 시간이 현대의 시간에 이르러 그 시간의 흐름이 마을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풍납동 토성이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성 내부 및 외부의 일정 범위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로 인해 새로운 건물의 건축이나 증축, 개축 등에 제한을 받게 되면서 성벽 안쪽 지역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특징이 있다. 이와 대비되게 성벽 바깥쪽의 모습은 새로운 아파트, 건물, 조금 더 나아가서는 롯데월드 타워 같은 현대적 모습이 나타난 장소다. 또한 홍수로 유실된 서쪽 성벽은 한강생태공원과 맞닿아 있다. 풍납동 토성으로 대표할 수 있는 약 2000년 전의 한성 백제시대의 유적이 남아있고, 그 것으로부터 현대까지 이어져 80~90년대의 모습들, 그리고 현대적인 모습까지 시간의 흐름 즉 살아있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곳이다. 그것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이곳 풍납동에 동시에 존재하고, 이러한 시간적 역사적 문화적 측면의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하다. 바람처럼 흐르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역사”와 “연결”이 풍납동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결 콘텐츠

풍납동의 정체성으로 정의한 “역사”와 “연결”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부적으로 공간 연결, 사람 연결, 시간 연결, 지역 연결의 4가지의 연결을 제시한다.

(1) 공간 연결

공간 연결은 역사유적인 토성과 근대적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거주민의 공간을 연결하고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프로젝트다. 풍납동의 공간은 풍납동 토성과 성벽 내부의 마을생활공간, 역사공원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물리적,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공간을 경관조성,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며, 아래와 같은 콘텐츠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토성 야간조명 설치

풍납동 토성은 산책로와 낮은 울타리 및 로프 이외의 유산의 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나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에게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재 보다는 항상 존재하던 생활공간, 작은 언덕 정도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극복

해내기 위한 야간 조명 설치에 세 가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성벽에 대한 훼손 없는 전반적인 경관 증진효과다. 풍납동 토성은 야간 이용객이 상당 수 존재하므로, 야간조명을 활용한다면 유산구역에 대한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여, 유산의 연결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물리적인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이로 인한 주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기존의 중요치 않다는 인식 속에서 야간 경관에 대한 변화는 주민들로 하여금 웅장함과 멋을 느끼게 하여 중요한 문화재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셋째, 야간 경관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주민의 여가생활 증진을 기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유산관광 자원화를 통해 지역에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백제 야행(가칭)’ 등과 같은 야간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직접 운영도 할 수 있어 관광객 유치 효과와 더불어 지역 주민의 고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김태현·박숙진, 2017).

② 체험 형 야외 박물관

풍납동에서는 수많은 유물 및 유구들이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풍납동 토성이 한성백제시대의 위례성, 즉 왕성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추정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초기 백제, 한성 백제 시대의 생활상을 재현해내거나 표현할 수 있는 기능과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풍납동 토성 성벽 산책로 및 풍납동에 조성된 공원 등을 활용하여 야외 박물관을 조성 및 운영하면 유산의 보존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야외 박물관 운영을 통해 유산에 대한 자긍심 및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고취시킬 수 있다. 단순한 동네 뒷산 또는 언덕 정도의 구조가 아니라 한성백제시대의 중요한 유적이라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 주민들의 보존·관리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둘째, 주민 및 방문객의 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단순히 유물, 유구를 전시하는 박물관이라는 공간이 아닌 직접 체험하고, 만져보고, 놀 수 있는 방식의 박물관을 조성한다면 미래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유산의 보존관리 인식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③ 트릭아트 활용 공간 연결

트릭아트는 바닥이나 벽에 그리는 그림으로, 착시 현상을 이용한 현실과 융합되는 그림이다. 보통 포토 존(Photo Zone)으로 많이 이용되며, 최근 횡단보도나 도로의 안내 표시 등의 실제 생활공간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풍납동에서 트릭아트의 사용은 두 가지 의의를 지닌다. 첫째, 공간 간의 연결이다. 풍납동 토성은 토성 산책로로 유입되는 초입인 지하철역(천호역)이나 풍납동 내의 주요 거점인 풍납 도깨비 시장,

매장유물 발굴의 중심이 되어 공원으로 조성된 풍납백제문화공원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 또한, 일부 토성의 유실로 인하여 토성이 가시적 연결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토성과 거점구역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고, 방문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트릭아트의 활용이 바로 그 장치가 되어 줄 수 있다. 둘째, 트릭아트를 이용하여 사라진 백제 유적의 모습 또는 역사적 사건들을 보여주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풍납동이 백제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임을 알게 하고, 이러한 경험적 연결을 통하여 주민 및 관광객에게 유산의 가치인식을 제고 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사용될 수 있다.

(2) 사람 연결

사람 연결은 풍납동의 변화를 겪어온 지역 주민들을 유산의 보존관리와 유산관광과 연결해주는 지역상생 프로젝트다. 유산을 활용한 지역 주민의 여가활동, 복지 및 참여와 이익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풍납동 내의 학교와 학생들, 상인, 일자리가 필요한 노년층 및 경력단절 주부 등의 역할을 중요시 여긴다.

①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은 사람 중심의 마을공동체 회복,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 구성 등을 정책에 반영하여 주민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신중진·정지혜, 2013). 마을 만들기 혹은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유산 관광을 활용한 유산의 보존관리 활동이 주민참여로 이루어져 궁극적으로는 유산의 보존관리와 관광의 관계가 공존관계 나아가 함께 일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민 역량 강화,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주민참여 플랫폼 조성,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유산관광 콘텐츠 생산 및 유통으로 이어지는 교육 및 교류사업 등의 활동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던 풍납동에 생기를 불어넣고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주민 소득을 증대시킨다면 문화재 보존관리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소외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유산구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마을 지도·스토리 북 만들기

마을에는 외부인들이 모르는 고유의 이야기 또는 숨겨진 장소 등이 존재한다.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스토리가 담긴 마을 지도 만들기를 실시한다.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풍납동만의 독특한 마을 가이드북이 완성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자

궁핍과 애착을 고취시킬 수 있다. 또한 마을 내의 숨겨진 이야기나 자원들(명소, 맛집 등)을 발굴할 수 있다. 모든 마을, 또는 동네에는 그 마을에만 존재하는 이야기가 있다. 풍납동은 풍납동 토성이 문화재로 지정된 전후를 경험한 다양한 살아있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엮어 마을사람들이 들려주는 마을 옛 이야기를 통해 풍납동의 매력을 찾고, 공유함으로써 방문객의 유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역사유적의 장소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해석을 담아 유산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유산의 진정성에 기여할 것이다.

(3) 시간 연결

시간 연결은 백제 시대부터 근대를 거쳐 현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시간적 연결구성을 가지고 있다.

① 반반 사진 공모전

최근 DMZ를 주제로 한 반반 사진 공모전이 진행되었다. 과거의 사진과 현재의 사진을 합쳐 새로운 사진을 만들어 내는 공모전으로, 같은 옛 사진이 주어졌지만 색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였다. 역사적 사실과 이야기가 있는 백제시대의 유적, 근대 사회의 모습, 현대의 모습 등을 간직한 풍납동에서 반반사진 공모전을 통해 주민들에게는 옛 모습을 추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외부인에게 풍납동의 과거와 현재를 알려 그 매력을 더욱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풍납동 주민의 현재의 삶이 역사적 시각으로 어떻게 재해석되고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② 기억의 거리 조성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여유롭던 옛 모습들을 추억하고, 그리워하곤 한다. 옛 물건들은 전시해 놓은 박물관, 테마 전시관, 옛 교실 또는 학교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장소 등이 인기를 끌기도 한다. 서울은 그 어느 장소보다 빠르게 시간을 경험하는 곳이다. 풍납동은 시간이 느리게 흘러 현재까지 연결되는 장소성을 갖고 있다. 풍납동 토성 내의 주거지역에는 학교 앞 조그만 문방구, ‘머리방’이라는 이름을 쓰는 옛 모습의 미용실, 목욕탕, 지금은 얼마 남지 않은 주산 학원까지 지금은 서울시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모습들이 남아있다. 이를 잘 이용한다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시간 연결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장소성을 활용하여 유산관광과 유산의 보존사이의 공존관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백제문화 재현

백제 옷 입고 퍼레이드 등의 방법으로 풍납동 내의 학생들이 백제문화를 현재에서 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접근은 크게 두 가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지역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역사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고증된 의복을 직접 입어보고, 체험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살아있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유산의 인식확대 및 가정구성원의 연계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축제나 행사들과 연계성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백제 야행’, 매년 가을 진행되는 한성백제문화제 축제 등과 연계가 가능하다. 지역 학생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유산의 진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지역 연결

지역 연결은 풍납동뿐만 아니라 송파구 내 다른 지역의 유적지, 장소와 이어주는 프로젝트다.

① 한성백제문화제 축제 연계

서울시 송파구에서는 매년 ‘한성백제문화제’라는 한성백제를 테마로 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시기는 9월 중순에서 10월 초로 작년에 17회를 맞아 약40만 명이 축제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행사가 몽촌토성이 있는 올림픽 공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 풍납동 토성은 한성백제문화제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축제를 풍납동과 보다 직접적,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풍납동 주민들이 축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축제를 풍납동 토성으로 들여오기 위한 첫 단계로, 풍납동 및 풍납동 토성에 대한 존재, 중요성을 축제 참가자 및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백제문화재연 퍼레이드’ 행사를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풍납동 주민이 한성백제문화제 축제의 주인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축제로 인한 경제적 혜택이 유산구역 내 주민, 그리고 유산의 보존관리에 쓰일 수 있는 구조적인 장치마련이 중요할 것이다.

② 시간 여행길 조성

송파구 일대를 연결하는 시간 여행길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한강 주변의 생태공원, 풍납동 토성, 몽촌토성, 석촌동 고분군, 방이동 고분군, 그리고 풍납동 내의 근대적인 건물들과 석촌 호수 주변의 현대적 건물까지 이어지는 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흐

를 공간적으로 연결하여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역사”와 “연결”을 키워드로 하는 도보여행 혹은 자전거 길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과 가능성이 존재한다. 태고를 뜻하는 자연, 즉 한강 생태공원으로부터 한성백제의 유적인 몽촌토성, 방이동 고분군, 석촌동 고분군, 풍납동 토성에 이어 근대 모습을 간직한 풍납동을 지나 현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주변의 건물의 연결을 통해 송파구에 산재되어 있는 백제역사유적을 연결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공주, 익산, 부여의 백제역사지구와 연결하여 백제 시간여행(가칭) 관광프로그램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동시대 유산과의 연결을 통해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세계유산의 가치인 완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유산의 보존관리와 관광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풍납동 토성에 적용하고 사례 대상지를 분석함으로써 문화유산관광을 통한 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풍납동 토성의 경우 유산의 보존관리와 유산의 활용이 갈등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분석 결과 이러한 관계형성의 맥락에는 풍납동 토성이 세계적 수준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오랫동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 보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산의 가치가 논의되고 유산의 보호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이로 인해 유산의 보호와 활용이 갈등관계에서 대립하고 있으며, 나아가 유산의 진정성 가치에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결성의 부족’으로 인해 유산의 보호와 활용이 갈등관계로 대립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유산의 완전성 가치의 위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역사”와 “연결”이라는 유산 및 유산구역의 정체성을 도출하고, 공간 연결, 사람 연결, 시간 연결, 지역 연결이라는 세부적인 유산관광을 활용한 보존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산의 보존관리와 관광의 관계에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논의를 확장하였다. 유산의 보존관리와 관광과의 관계를 7단계로 구분한 McKercher와 du Cross(2002)의 연구와 이를 확장하여 우리나라 세계유산 보존관리와 관광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 한숙영(2015)의 연구에서는 유산의 보존관리와 관광이라는 두 개념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관계

형성의 맥락적 차원으로 지역주민을 포함하였다. 즉, 유산의 보존관리와 관광의 관계에 유산이 위치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제시 하였다. 우리나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와 관광의 갈등의 관계에서 공존의 관계, 함께 일하는 단계, 나아가 전적으로 협력하는 단계로 가는데 유산이 위치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유산의 보호수단으로써 세계유산 등재와 문화유산관광을 논의 하였다. 이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여전히 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논쟁이 상존하고 있지만 국가·지역차원에서 유산을 활용하고자하는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황희정·박창환, 2015). 최적의 관리수준 하에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유산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모두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Mekercher & Cros, 2002)는 주장과 동일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주민의 참여가 전제된다면 문화유산관광을 통한 유산의 보호가 지속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셋째, 세계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의 의미를 유산관광측면에서 해석하였다. 세계유산의 진정성은 ‘신뢰성을 지닌(credible)’ 혹은 ‘진실성을 지닌(truthful)’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완전성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표현함에 있어서 필요한 충분한 제반 요소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요인이다(UNESCO). 지역주민은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이들의 참여가 동반되었을 때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세계유산의 등재과정에서의 진정성과 완전성 가치 조건을 충족 및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문화유산과 공존하는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가치 제고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연구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또한 연구의 한계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해 풍납동 토성 유산의 보존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도출된 콘텐츠의 실제적용은 주민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실행되지 않고서는 효과성을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향후 지속적인 참여관찰과 자료 수집을 통하여 장기적 관점의 사례연구 혹은 문화기술지등의 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문화유산 및 유적에 대한 지정은 대부분 제한을 하거나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왔다. 따라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불편을 겪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불편 이외에도 간접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를 통해 물리적 제한으로 인한 소외를 최소화 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문화유산을 보존·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유산관광을 이용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의 미래는 이전처럼 이용하지 못하게 막아 지키는 것이 아닌 유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이용을 통해 지역 주민 및 이용자들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중요한 유산임을 느끼고 스스로 지키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동진·박소현·성기진·명준영(2013). 세계유산의 등재, 그 의미와 보존관리의 현안. *도시정보*, 374, 3-21
- 김성우(2007). 건축문화유산의 관광활용과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문화유산관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 김영재(2017). 문화유산의 진정성. *건축*, 61(3), 78-78.
- 김지선·이훈(2010). 문화유산관광의 지속가능한 관리모형 개발-고궁관광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2(5), 479-496.
- 김태현·박숙진(2017). 서울한양도성의 경관조명이 체험관광가치와 야간관광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관광연구*, 13(2), 47-64.
- 김혜란(2009). 문화자본이 문화유산의 관광경험과 관광지 애착도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20.
- 남윤희·엄서호(2016). 세계유산 관광지 진정성 측정에 관한 연구-안동 하회마을 방문자를 대상으로. *관광학연구*, 40(8), 205-223.
- 류재숙·임재필(2018). 문화유산 관광지의 이미지와 행동의도 간 관계에서 고유성 인식의 매개효과-백제문화유적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광연구저널*, 32(1), 233-246.
- 문화재청. cha.go.kr
- 변찬복·한수정(2013). 세계문화유산의 관광체험, 진정성 및 관광만족간의 관계. *호텔경영학연구*, 22(4), 261-282.
- 서울지역사문화재과(2018). 백제왕성 서울 풍납동 토성의 현재와 미래(24-56).
- 송학준(2012). 문화관광지 선택속성, 지각된 가치, 만족 간 구조적 관계 연구-경북궁 관광객을 대상으로. *호텔경영학연구*, 21(5), 219-236.
- 신중진·정지혜(2013).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만들기의 역할과 과제. *정신문화연구*, 36(4), 59-96.
- 오상운·노경국(2011).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 변화 연구: 지역과 시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동북아관광연구*, 7(3), 51-74.
- 유네스코. whc.unesco.org
- 윤설민(2015). 문화유산관광지의 고유성 및 보존의 지지도에 대한 관광객반응-서산 해미읍성을 대상으로. *호텔경영학연구*, 24(6), 61-77.
- 이일열(2008).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의 지역 관광자원화에 대한 시론적 연구-프랑스의 사례. *관광연구*, 23(3), 447-469.

- 장경수(2001). 문화유산관광자의 서비스 품질 측정적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10.
- 전명숙(2006). 문화유적지의 관광자원화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4), 93-101.
- 전중환(2013). 세계유산의 관점에서 본 국가유산의 가치평가와 범주화 연구: 문화재청 지정국가 '명승'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8(6), 929-943.
- 케이 반 뎀(2013). 섬 생태계 보호의 과제들:소코트라군도(예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역. *세계유산 인류를 위한 혜택*, 41-52.
- 한숙영(2015).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와 관광의 관계: McKercher와 du Cros의 이론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29(1), 132-149.
- 한숙영 · 김사현(2007). 유산과 유산관광의 개념에 대하여: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1(3), 209-223.
- 한숙영 · 전민지(2017). 문화유산관광지에서의 무작위 현장실험을 통한 문화관광해설사해설서비스의 효과 검증: 관광객 방문 만족을 중심으로. *동북아관광연구*, 13(2), 25-45.
- 헤럴드경제.(2015). 서울 풍납동 주민 55% “풍납토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반대. 10월 5일
- 황희정 · 박창환(2015). 문화재 활용, 진정성의 구현인가, 훼손인가. *관광연구논총*, 27(4), 3-26.
- Ashworth, G. E. & Turnbridge, J. E.(1990). *The Tourist Historic City*, London: Belhaven.
- ICOMOS(1994). The Nara Document On Authenticity.
- McKercher, B. & du Cros, H.(2002), *Cultural Tourism: The Partnership between Tourism and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New York: The Haworth Hospitality Press.

접수일(2018년 08월 15일)
수정일(2018년 08월 22일)
게재확정일(2018년 08월 23일)
3인익명 심사필

A Study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Strategies of Heritage Site through Cultural Heritage Tourism*

Kim, Hyun-Ki** · Choi, Jong-Hyun*** · Han, Ju-Hyoung****

Abstract

Efforts have been made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to preserve and manage cultural heritage through legal, administrative and academic supports such as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nd the UNESCO World Heritage System. Also, there have been discussions about heritage conservation and tourism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effectiv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strategies to protect heritage by developing cultural heritage tourism in a study context of Pungnapdoseong Fortress, where has been designated as a protected area in South Korea. A case study is conducted to understand current issues of Pungnap-dong and Pungnapdoseong Fortress by collecting and analysing data from interviews with local residents, reports, documents and newspaper articles, and participatory observations. As a result, this study identified that the heritage property is vulnerable to physical and social conservation. Also, there are conflicts and disagreements among stakeholder groups particularly local residents and governments. This study suggested that community-based cultural heritage tourism development could be contributed to heritage conservation by resolving a prolonged disagreement of conservation versus development. Specifically, this study recommended projects that link place, people, time, and region. This study contributed to expand a discu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ourism development and heritage conservation by including the roles of local residents.

Keywords: cultural heritage tourism,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heritage,
Pungnapdoseong Fortress, local resident, case study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6S1A5B8914028).

** M.S. Student, Graduate School, Dept. of Leisure & Tourism Science, Kyonggi University, Korea.
E-mail: hkim1993@naver.com

*** Undergraduate Student, Dept. of Tourism and Recreation, Kyonggi University, Korea.
E-mail: joychoi7558@g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Liberal Arts and Interdisciplinary Studies, Kyonggi University, Korea. E-mail: juhyoungghan@gmail.com